

사람과 사람사이



한·일 직능인대회 참석



■ **황인구** 회장은 지난 달 24일 농림부 농산유통국을 방문,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협회가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농림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을 갖고 협회 중점 추진 사업인 국산한약재 브랜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세부 운용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 및 고문단회의

한국생약협회는 10월8일 오후 2시 협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및 고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황인구 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 사업추진 내용과 정부 정책현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회장단 및 고문들께 브리핑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도지회 정기모임



■ **허수** 강원도지회장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인제에서 도지회 정기모

경남도지회 회원 중국답사
경남도지회(지회장 김정

만)는 9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한약재 재배단지 및 약초시장 견학을 다녀왔다. 도지회회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한약재 수입개방과 GAP제도시행 등 급변하는 세계 한약시장의 흐름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국내 생약농업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

[승인]

△조성영 충청남도 예산군 지부장(2002.8.22일부) △권영균 경기도 성남시 공판장장(2002.9. 12일부)

[명의변경]

△윤동찬 충청남도 온양시 동부 지부장 → 아산시 지부장(2002.8.22일부)

[해임]

△한대성 부산광역시 서구 지부장(2002.8.14일부) △천명석 경기도 남양주시 지부장(2002.9. 12일부) △남동균 경기도 양평군 공판장장

(2002.9.12일부) △문득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판장장 (2002.9.12일부) △문병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판장장 (2002.9.12일부)

[내방]

△임연화 명예회장 △남정룡 고문 △정형모 부회장

△장지홍 부회장 △황용수 중앙이사 △엄경섭 중앙이사 △안지명 중앙이사 △이인기 중앙이사 △이진경 중앙이사 △박영입 중앙이사 △함승주 중앙이사 △최동진 중앙이사 △김동윤 중앙이사 △위풍관 중앙이사 △정일영 중앙이사

김동하 공판장 서예부문 국전 입상

서울시 노원구 공판장 김동하씨(49세)는 지난 8월 열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입선 당선됐다. 약 10여년 넘게 서예를 배워온 김동하씨는 지난 99년 첫 입선 이후 이번이 두번째.

(사진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3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서예 입상작들 중 김동하씨 작품 앞에서)



제100차 중앙이사회 이모저모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8월22일 오후 2시 우이동 유원지 옥류정에서 제100차 중앙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직제규정 개정안 심의 건 △국산한약재 브랜드사업 추진 관련 세부운용방안 논의 및 포장제, 간판, 명함, 서식류 등 디자인 심의 건 △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이다.

공판장·지부 간판 구분 부착

○...생약협회의 일원화된 이미지 창출 차원에서 시도된 동일간판 부착 건은 공판장의 경우 <국산생

약재상설매장>, 군지부의 경우 <생약협회 00군지부> 로 구분 제작 부착기로 했다. 협회 내 공판장과 군지부 회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역할은 큰 차별성이 없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간판을 부착할 경우 회비 차등적용의 명분이 없어 민원소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소수품목부터 시범 시행

○...브랜드화 사업 추진 품목 선정은 황기, 당귀, 천궁, 작약 등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은 소수 품목부터 우선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

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품목 선정은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산지 생산현황 및 가공여건, 유통시장 흐름 등을 고려,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엄경섭 이사 발의로 채택된 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17대 9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관개정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각 도지회장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을 발의한 엄경섭 이사가 맡게됐다.

정기총회 전까지 한시운영

○...엄경섭 이사는 "지난 69년 설립돼 무려 33년이란 역사를 지닌 국내 유일의 생약생산자단체인 우리협회지만 조직체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지적하고 "이왕 위원장을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차기 이사회 개최 전까지 협회 정관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는 반듯한 정관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관개정소위원회는 내년 정기총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정희>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예탁 : 1. 생약재배기술지도
-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람에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기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